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72 호

2011년 11월 15일

발행인: 변 주 선

편집인: 서 한 샘

home page:

www.snucaa.or.kr

e-mail:

snucaa@hanmail.net

100-130 서울 중구 순화동 215 바비엔 118 1807호 전화: (02)6399-6500 / (02)720-8116 FAX: (02)720-8117

2011 문화탐방 민족사관고등학교 방문



공동체의식 충만한 학교 만들자

金 聖 烈 (敎育·75)

경남대 교수·한국교육전문위원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공동체는 교육에 대해 뜻을 정하고 방향을 설정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네트워크다.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학교만은 아니지만, 그 어느 교육기관보다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공동체는 그 자체로 학교공동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시대와 정부가 바뀌어도 비록 그 의미와 초점이 달라질지언정 꾸준히 지속돼 왔다. 1990년대부터만 보아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학교공동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학교공동체를 학교운영 과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정책과정이나 학교운영에 교원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참여정부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교원 조직 간 또는 시민단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포단 안정화를 강조하는 의미로 했다. MB정부는 나눔과 배려, 돌봄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학교공동체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학교운영의 핵심 구성원, 즉 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선 학교장은 협동적 학교문화 조성자여야 한다. 특히, 교사들 사이에는 고립적으로 일하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확산돼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공동체적으로 일하는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모습도 갖춰야 한다. 학교공동체 구성 주체들의 권리주장이 강해지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육관이나 교육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자'가 돼야 한다. 각종 행사를 기획하거나 상징이나



규칙 등을 활용해 공동체의식을 내양함으로써 교사나 학생 모두 학교의 공동 목적에 기여하려는 동기를 키워낼 수 있다.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전문성 개발에 노력하는 평생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개발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헌신할 때 학교공동체 구성 주체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공동체의식이 충만한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동료의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상호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동료의식은 학교 조직 내에서의 파당을 배제시킬 수 있으며, 지위고하나 부서의 구분을 넘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관계의 토대가 된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교육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과 합리성을 가진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교와 논의하며 책무성을 함께 나눌수 있는 학교교육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교권 존중 분위기의 조성자가 되어야 한다. 교육전문가로서 교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줘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태도는 비려야 한다. 교원이 학교 내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들여다보고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을 정도로 정지전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장,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이 충만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을 관찰·습득하며 전경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P7에서〉



이 會報는 천재교육 崔容準(數·61入)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2011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

청관장학생회는 2011년도 2학기 청관장학생과 범문장학생으로 재학생 15명을 선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여식은 8월 9일 모교수회회의실에서 있었으며, 수여식에는 모교 학장단과 학과장,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답사는 윤리교육과 전경실 학생이 했다.

장학생 명단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청관장학생(5명: 총 13,307,000원)

학 과	성 명	학년	등록금액(원)
교육학과	김제희	3	2,611,000
특수교육	김민정	3	2,611,000
사회교육	이지은	4	2,611,000
역사교육	이원진	3	2,611,000
지리교육	고대철	3	2,863,000

▶ 범문장학생(10명: 총 28,958,000원)

학 과	성 명	학년	등록금액(원)
국어학과	신우진	2	2,611,000
영어교육	오명도	2	2,611,000
불어교육	이유빈	2	2,611,000
윤리교육	전경실	1	2,611,000
수학교육	유진수	3	2,619,000
물리교육	한영규	1	3,179,000
화학교육	오하늘	4	3,179,000
생물교육	심수연	3	3,179,000
지구과학	석우미	2	3,179,000
체육교육	박이선	4	3,179,000



2011 문화탐방

사범대학 동창회(회장 변주선: 영어교육 60~64)는 동문친선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3일(목)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윤정일: 교육 62~66)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평창의 할렐시야를 방문 견학하고, 민족주제조사 '독수당'을 방문하여 공경견학하고 더불어 회사에서 제공한 20여 가지의 민속품을 시용하는 등 청명하고 수려한 강원도에서의 가을하루를 만끽하였다.

변주선 회장,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등 70여명 대부분이 중고교 및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은퇴한 동문들이기에, '민족주제조사' 교육

과 '영재교육'을 어느 선진국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는 '민족사관고교'의 현장을 보면서 교장 이하 모든 교사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협찬해 주신 분들〉

변주선 9601 10만원

김원석 9631 20만원

정우생 9631 10만원

사대부고 李起成 신임교장, 변주선 회장 방문

지난 9월 1일자로 서울대사대부고 교장으로 발령받은 李起成(北75) 동문이 蔡賢九(體78) 동문과 함께 10월 10일 李柱仙 회장을 방문했다. 李 교장은 사대부고가 부설학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겹치기를 강조하며, 동창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줄 것을 후 회장과 모든 동문들에게 당부한다고 하였다.



청량회 가을나들이

사범대 비교직자들의 모임인 청량회(회장: 윤용희) 회원 30여명은 지난 9월 17일(토) 가을 경기모임의 일환으로 영주의 불정사, 압동의 하회마을, 병산서원, 부용대 등을 돌아 보았다. 막걸리를 곁들인 점심식사는 안동찜닭과 두부요리로 즐겼고, 안동에서는 강고동에서 정식을 들며 하루를 만끽했다. 참석자 모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정사의 목조전통, 하회마을 공인, 영국여왕의 생일잔치를 했다는 유성동 본가, 병산서원 앞의 수려한풍광, 부용대 산행 등은 잊지 못할 추억거리로 함께 가지 못한 우리 동문 모두에게도 한번 가볼 것을 권한다고 했다.



(글: 박영식-영76, 청량회 총무)

〈장학생 답사〉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공이 산을 옮겼다는 뜻으로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걸려든 것이 바로 꿈을 향한 노력과 겸손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은 부족한 저희에게 늘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기와 주셨으며,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발전으로 저희에게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참히 낮은 곳에 임하시며 묵묵히 만족과 사회를 끌어와 주신 대한민국의 진정한 스승이신 선배님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감히 말로서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후배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선배님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송구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 후배들이지만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 저희도 사범대와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에 진출하여 어느 자리에서 있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희망을 나누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참된 의미를 몸소 느꼈으며 학생들을 일대일로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겸양의 자세와 끊임없는 연

구 정신으로 시대에 걸 맞는 변화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사범대에 진학하여 다양한 고민들을 해보면서 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여 우리 사회와 교육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굳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의 구성원으로서 저희 후배들도 하피를 초월하여 더욱 단결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더욱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뜻 깊은 기회를 주신 동창 회장님과 선배님들, 학장님과 교수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뜨거운 열정과 부단한 노력으로 선배님들의 높이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쓰시 와중에도 부족한 저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저희 후배들도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실(윤리교육과 1학년)

會長動靜 및 동창회來訪人士

會長動靜

(2011.7.15. ~ 2011.10.20.)

1. 동창회소식 171호 발간
2. 2011학년도 1학기 청춘·빛은장학금 지급식
3. 민족사관고·알렌시아 문화발방 현장답사
4. 유근원 의원 출연기념회 참석
5. 문화발방 준비회의
6. 문화발방 '민족사관고·알렌시아', '국순당'
7. 서울대총동창회 '홍제명대' 행사 참석
8. 서울대총동창회 '장학발방 준공식' 참석

동창회來訪人士

(2011.7.16. ~ 2011.10.18)

- 박병선(교육66) 전 정인대 총장,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권순용(교원61) 전 중앙일보 이사
 고윤성(영어65) 영어교육과 회장
 김경수(국어63) 중앙대 명예교수, 청사로파리 회장
 김선영(교육53) 전 인학대 교수
 김영일(교육62) 전 상동고 교장, 본회 감사
 김자복 전 정인교대 총장
 김종옥(국어71) 모교 학장
 박정현(국어64) 본회 총무부회장
 박성식(영어76) 변호사
 박희업(교육64) 전 서원대 교수
 방자옥(생물68) 충남대 교수, 생물교육과 회장

- 서한(국어64) 한성학원 원장
 실효대(영어77) 경향신문 선임기자
 심이해(체육64) 전 한울중 교장
 유자화(국어68) 국제해군법 한국지회 부이사장
 유진근(교육60) 전 구립고 교장
 이규택(교육61) 미래연합 대표
 이종열(교원58) 회 개나다
 이병희(영어70) 서울국제고 교장, 본회 조직부회장
 이상구(교원56) 전 교육부총리, 본회 고문
 이성진(교육53) 한국행정과학연구소 소장
 이순권(교육62) 세무사, 청관장학회 감사
 이원희(국어71) 전 한국교총 회장
 이종자(국어70) 서울대사대부설어중 교장
 이희자(가정60) 명지대 명예교수
 임동호(교육61) 전 사립학교교원연립연공단 상무
 임향순(수학60) 다함세무법인 회장, 본회 고문
 장석우 인천대 석좌교수
 전상학(생물73) 모교 기획부회장
 정옥자(교원60) 회 개나다
 정원희(생물58) 전 한국과학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창희(체육62) 모교 명예교수, 본회 사업부회장
 조창일(국어61) 단국대 대학원장
 최귀남(체육66) 차세대초·중·고 부회장
 최기수(체육65) 전 자양고 교장
 최영재(영어65) 전 정인고 교장, 여성문명의 총무
 최희선(교원61) 전 교육부차관, 전 정인교대 총장
 현대복(교육56) 전 경희대 교수

■ 2011학년도 1학기 청관·범은 장학생들에게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장충식 이사장님

저는 이번에 범은장학생으로 뽑히게 된 김아영입니다.

우선 저를 장학생으로 뽑아주시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으로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리고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항상 막막함을 느끼고 부담스러웠는데 범은장학생으로 선발된 덕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동안은 마음속으로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지, 막상은 아래를 내려다보기보다 위를 바라보며 부족한 점을 아쉬워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학생으로 뽑히게 되면서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뿐 아니라, 덕을 마음에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편지 한 장에 감사한 마음을 다 담을 수 없기에 이사장님께 부끄럽지 않을 후하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아영(지리교육 4학년) 올림

청관장학회 이사장님, 임원님들께

지난 겨울 유난히 추웠던 날씨가 엊그제부터 눈에 띄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새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겠지요. 추운 것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이 변화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만, 이사장님과 임원님들께서는 어퍼신지요.

저는 이번에 청관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06학번 이지은입니다. 97년도 금융위기 때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연이어 자영업에도 실패한 이후로 저희 집의 경제적 사정은 꼭 좋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교시절에는 밀알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신 덕에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계속 코넬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관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신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코 여윌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후배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장학재단을 창립하신 것, 그렇게 모인 소중한 장학금을 제게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선배님들께서 직접 주시는 장학금이기에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선배님들께 격려를 받는 기쁨, 또 장차 제가 받았던 것처럼 후배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다는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에 올해 동생까지 대학에 가게 되어 경제적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배님들께서 주신 장학금이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칭찬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도 잘해가라는 격려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격려해주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감사함을 후배들에게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꼭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사회가 제게 공부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고 배품의 감사함을 알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을 믿고, 교육이야말로 모든 이의 희망이 되는 사다리임을 믿습니다. 사범대학에서 배운 이 소중한 진리를 제 또한 사회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장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봄날씨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저처럼 즐겁게 느껴지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지은(사회교육 4학년) 올림

《학사》 88명

교육학과

김한길
심안나*
장가영
장대환

국어교육과

김은진
박종관
박새봄
박주영*
반상영
손병주*
신희철*
윤해림
이문영
이현진(2005入)
이현진(2008入)*
조인태
최상영
장다영

영어교육과

김송이
박유미
신지영
윤안나
유수연
이규파
이예지
최은지*

불어교육과

박성운
박지영*
최동표

사회교육과

김아현
김정미
배해림
안은조
윤해진

역사교육과

김남수
김민석
민정연
신형원

지리교육과

김선미
박노은
박준

양동선*

물리교육과

김도영*
신봉필*
이용남

수학교육과

강범철
김다사봄
김한별
박지영
배강은
말수현
서동현
심종곤
이상우*
이해림

물리교육과

안상영
이서지*
이한별*

화학교육과

고아름
김준걸*
손종민
신희상
안지훈
이규리

생물교육과

배재영
서여민
신보라
안지은

지구과학과

김창호*
박영우
우해진
이준희

체육교육과

강우영*
김대현
김성경
김승학
김재욱
김주성
김준영
문준호
심문규
안효정
이민이

이수빈

이종우
조요환

《석사》 63명

교육학과 교육행정

박현주
유지원
이영철

교육학과 교육학

김병주
나카에제이코*
박용규
방지현
서은진
이선영
이진*
장주정
최효인

교육학과 교육상담

김정은
박민지
서정은
유미연

교육학과 평생교육

김은지
박지선
염경
유민선
최예슬
한영

국어교육전공

김가람
김지혜
류방동
무제위
이소연
속영

영어교육전공

강은지

사회교육전공

안보혜*
이정은

역사교육전공

박해영
최주연*

지리교육전공

김진혁*

이선화
제희원

물리교육전공

김소라
김영진
신유연
허유리
허은희

수학교육전공

배준
이지은
임해정
최연화
최재영
황지현

화학교육전공

노민지
전정철

생물교육전공

민소정
박순영
유금복*
강수철*

체육교육전공

손정호*
이선희
이재민
이재홍
장영주

협동과정 특수교육

정정미
전미선

협동과정 환경교육

노이미

협동과정 미술교육

박소정

협동과정 가정교육

임선영

《석사》 30명

교육학과전공

강민수
강주연
문수정
박성호

변환정

황신수
임완철
장선영
장선화

국어교육전공

노금숙
손예희*
이선영*
주재우*

영어교육전공

강서정
강지연

사회교육전공

우희숙

물리교육전공

추정환
장영우

수학교육전공

김은복
박보람

화학교육전공

박은이

생물교육전공

이지영

지구과학교육전공

신지은

체육교육전공

김수연
박정준
한주*

협동과정 특수교육

고은영
김근하*

협동과정 환경교육

김희정
강미정



■ 사범교육협력센터 준공식

지난 7월 5일 11시, 원혜영, 임해규 의원, 총장단, 변주선 동창회장 등 70여명 참석한 가운데 12동을 재건축한 사범교육협력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 천재교육 장학금 수여

지난 8월 11일 교수회의실에서 (주)천재교육 오병득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 용문고등학교 협약식

지난 7월 26일 16시, 용문고등학교와 교육학술협약을 체결하였다.



■ 국립사범대학 학장 협의회

지난 8월 11일 교수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사범대학 학장단과 사범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 캐나다 알버타대학교 복수학위 협약체결 및 기념세미나

지난 8월 11일 캐나다 알버타대학교와 복수학위 관련 협약체결을 하고 기념세미나를 진행했다.



■ 學科 同 門 會 소식 ■

■ 教育學科

◆ 제 12차 교육연구 국제학술대회(ICER-12) 개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는 2011년 10월 26일부터 28일에 걸쳐 '제12회 교육연구국제학술대회(ICER-12: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ducation Research 12)'를 호텔 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이며, 20여 개국 30여명의 해외 학자들이 초청되어 열띤 토론의 장에 참여했다.



◆ 서울대학교 첫 여성의국인 정년보장 교수 탄생

Lynn Ilon 교수가 9월 1일자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였다. 이로써 서울대학교 첫 여성의국인 정년보장 교수가 탄생하게 되었다. 교육학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Lynn Ilon 교수는 이번 2학기에 평생학습연구방법론과 '융합학습시스템' 수업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國語教育科

◆ 2011 국어교육과 임용시험 1차 북강

지난 8월 11일(목) 오후 11시 20분에서 국어교육과 임용시험 1차 북강이 열렸다. 이번 강연은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국어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진공영역 심화 탐색 강연과 수험 전략 강연으로 이뤄졌다. 특히 수험 전략 강연에서는 최근 임용 시험에 합격한 동문 선배들이 강연자로 나서 학생들의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2011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2011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9월 6일(화) 학과강실에서 거행됐다.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자 동문의 고문인故 이용백(45) 동문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남대 장학금과故 정영숙(54) 동문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언지장학금, 이창득(71) 동문이 기탁한 기금으로 수여되는 '다다 장학금', 국어교육과 동문장학회에서 수여하는 동문의 장학금 및 국어교육과 60동 동문 장학금 수여가 진행된 이 자리에는 홍태식 동문회장, 이창득 동문을 비롯하여 모교 교수들이 참석했다.

◆ 2011 한글날 학술제

지난 10월 7일(금)에 2011년 국어교육과 한글날 학술제가 열렸다. 오전에는 국어교육에서 토론회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학부 1, 2학년 학생들의 학술발표와 인허대 장운희 선생님의 한글 특강이 열렸다. 오후에는 노현강당에서 학부-대학원 레크리에이션 행사가 열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2011 국어교육과 동문의 가을나들이

지난 10월 22일(토)~23일(일)에 국어교육과 동문의 가을나들이 행사가 열렸다. 이번 가을나들이는 국어교육과 동문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서천 마량교구의 부여군 일원을 관광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백담해(49) 동문이 부여군에 위치한 자택에 동문들을 초대하여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2011 해암 학술상 시상

- 일 시 : 12월중
- 장 소 :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 참가자 : 국어교육과 교수, 대학원생, 동문

英語教育科

◆ 제12차 교육연구 국제학술회의(ICER-12) 개최

영어교육과 동문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천선금리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8월 9일 화성성곡 글프코스에서 6명 두 팀이 경기를 벌였으며, 심명호 명예교수님이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경기 후에 클럽하우스에서 시상식과 함께 회기에대한 식사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배재대학 경영학과에 재직중인 김철교(68) 동문의 저서 증정도 있었다.



■ 朴炳憲(國.46) 저술사학자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경암미술상 '특별공로상' 수상

박병선 동문은 지난 9월 2일 프랑스가 약탈한 외규장각 도서관의 국내반환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으며, 지난 11월 4일에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DEC하우스에서 있었던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경암학술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최근 박 동문에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온 동문이 두손 모아 기원한다.



■ 金潤俊(國.48) 전문교부 차관

'教育아사히' 출판

원로 교육자 金潤俊이 교육아사히 '그래도 우리 교육은 들어간다'를出版했다. 著者は教育現場과 行政分野에서 평생을 봉사한 전문가답게 教育의 態勢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작은 책자에 어쩌면 이렇게도 잘 정리하였는지 감탄치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저자는 師大를 나와 초·중·고 교사·교감·교장을 거치고 강원·서울교육감을 거쳐 문교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 李相姬(社.48)

'미안 보리리 속의 뽕조구두' 출판

이상의 동문이 출판한 이 책은 6·25를 겪은 내용을 말에게 들려주어 어머니의 기억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말로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다. 한 명의 신여성이 경험한 분단의 현실과 철학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글란출판사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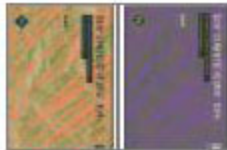
■ 韓元永(國.49)

한국신문연재소설의 사적 연구(1/2) 출판

한원영 동문이 출판한 한국신문연재소설은 2010년평방우수도 서로 개회기 신문의 등장 과정과 약 100년 전에 있었던 개회하는 나라의 근대의 과정에서 개회를 주도하며 난국 타개를 위하여 탄원권, 민권 수호, 빈민구제 외세에 항거, 일제 침략을 막는데 신봉역을 맡았던 신문과 이에 연관된 소설의 고구요, 1910년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화에 놓이자 신문도 잡지도 우리 것은 없어지고 총독부의 기관지 毎日申報만이 독점무대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 민간신문이 등장, 민족의 계몽과 각성의 촉구, 자주독립 정신 고취를 위하여 형극의 길을 걸은 민족문화와 일제 식민지 체제에 협매, 이른바 황국문화 수립에 공헌한 많은 친일소설에 대한 서술이다. 조국방복 후 신문연재소설의 시대적 양상은 새신문출범

의 40년대 좌우대립과 이념분화, 혼란기의 50년대 민족상잔과 전후문화 기를 잡힌 60년대 사회현실의 고발과 참여문화, 발전을 향한 70년대 유신권력과 대응문화, 도약 성장의 80년대 이념 해방기의 민중문화, 21세기를 준비하는 90년대 문화의 통일지향과 현대사의 재검증으로 크게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푸른사상/654쪽(1권)-47,000원, 461쪽(2권)-33,000원>



■ 金榮謙(社.49) 전 우학여고 교장

수필집 '바퀴빛 살아고 싶어' 출판

韓國 金榮謙이 일곱 번째 수필집 '바퀴빛 살아고 싶어'를 出版하였다. 중고교 교사와 연구관·교감·교장 등을 역임하면서 꾸준히 집필활동을 해온 김 동문은 모두 7권의 수필집을 출간했으며, 대입 참고서와 교육현안에 대한 연구논문도 다수 집필한 바 있다. 현재 한국수필가 협회와 한국문인협회, 문학지집 등의 회원과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누리미디어 / 15,000원>



■ 張忠植(歷.51) 범은장학재단 이사장

합송기념 출판기념회

中齋 張忠植 동문이 합송을 기념하여 지난 9월 28일 위귀회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張 동문은 회고록 '지대를 넘어 미래를 열다', 수필집 '바퀴 빛 남은 한길', 수필 영문판 'The Last Road Left' 헌정사회집 '자락나투 숲으로 가서 5권의 책을 출간했다. 1932년 중국 댜진(天津)에서 태어나 1960년 대학강단에 선 이후 1966년 단국대학 학장에 취임, 종합대학교로 승격, 한국대학 사상 최연소 총장에 취임한 이후 36년간 총장에 재임하며 단국대학의 발전을 견인했고, 한국최초의 지방캠퍼스 설립, 캠퍼스 탈(脫)서울을 이루어 대학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張 동문은 대학 경영 뿐만 아니라, 체육인으로서 동구권 수교, 남북단일팀의 단기(團體) 및 단기(團體) 제정, 남북체육회담의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하며, 해방 후 최초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 민족회합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金允植(金允植55)** 서울대 명예교수

김윤식 동문이 지난 5월 2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0회 수당상(인문사회부문)을 수상하였다.



■ **韓相民(韓相民56)**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장

한상민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장은 지난 8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6회 교과서의 날 기념식'과 '우리나라 교과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는 정부 수립 후 당시 문교부가 최초로 발행한 '초등국어 1-1'의 발행일인 10월 5일(1948년)을 2006년부터 교과서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韓 회장은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교과서 연구의 편향·발행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도 전달할 예정"이라며 "교과서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에는 편수판인 업무에 종사한 전문직·일반직 4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柳錫烈(柳錫烈58)**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정일 정권 외배와 북한선교' 출간

모동이돌선교회 이사장인 柳錫烈 동문이 조선그리스도교인명의 실체를 고발한 책이다. 柳 동문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제제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제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위로부터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주민층을 파고들어 그들의 의식구조를 바꿔 놓고 그 힘으로 북한 전체를 변화시키는 '바래로부터의 변화'만이 북한내 복음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한국 교회가 북한선교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북한 실상을 아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광서원 / 12,000원>



■ **鄭英淑(鄭英淑59)** 중앙대 명예교수, 유리다체 아카데미 회장

정영숙 동문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세실아트홀에서 심재 공연을 담은 고화질·고음질 DVD를 활용하여 오래라 전편 감상할 수 있는 '라 스킵라 오래라 아카데미' (강사: 선병철, 음악평론가)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DVD의 함께 하는 클래식 영상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전문



적인 식견과 해설능력을 겸비한 음악평론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양한 클래식 작품을 통한 숨겨진 콘서트 환경을 볼 수 있다. 정영숙 동문은 2005년~2009년까지 목원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 **朴興日(朴興日60)** 한국가톨릭교회장신학연합회 이사장

박흥일 동문이 지난 8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장선교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 **朴柱仙(朴柱仙60)** 본회 회장, 대법성모병원 행정원장

제8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개최

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아동재단의 회장은 지난 8월 17~19일 국회 천경기념관과 서울 여스콜라 등에서 '세상과 함께 하는 행복한 소풍'을 주제로 제8회 대한민국아동총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들이 모여 아동의 현실문제에 대해 토론했고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통해 아동의 참여 권리를 증진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2002년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했던 아동 대표들이 외국 아동의 활발한 참여 동향을 접한 뒤 아동총회 개최를 요구했고 이를 정부의 민간이 받아들여 2004년부터 열리고 있다.



■ **柳聖勳(柳聖勳61)** 서울대 명예교수

시집 '등근 세로화' 출간

유안진 동문이 새 시집을 내놓았다. 짧은 형태의 서정시를 가르키는 柳聖勳 시리드 중 한 권이다. 종교와 신화, 예술과 미니즘 이외에도 옛 예인과 흥취는 세월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재료들을 갖고 재치있게 써냈다.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시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느낀 인생의 깨달음과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진솔하고 담백한 시어들이 돋보인다. <서정시학 / 9,000원>



■ **高麗(高麗61)**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

자연에서 찾은 성공비법 출간

고경순 동문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기계발과 혁신의 요소를 자연 속에서 찾아 풀어내었다. 高 동문은 자연을 거스르고 차별하는 '인간우월주의'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자연 법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연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가르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연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아야 할 생존과 상생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경이로운 자연의 다양한 현상 속에서 삶의 진리와 자기계발의 교훈을 통찰케 있게 들려주고 있다. 또 성공의 세 가지 원동력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인품, 협동심을 지닌 인간관계,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실천의지에 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자연에 빗대어 소개한다. <오래된/14,000원>



■ 李相顯(歷 65)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 고려 출간』

이경식 동문이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 고려'를 출간하였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토지분급제로서는 봉건분급국가의 전형으로, 위로는 고조선과 영국기의 봉지제(封地制)를 계승하고 아래로는 조선의 과전, 직전제로 이어지며, 토지의 소유 경영상에서는 집권통일 국가단계 시기 소유의 경영을 한층 확고히 하고 임원회하는 등 토지제도 발달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차지한다. 나아가 세계 각국의 토지 농업진흥과 대비하여 이 시기 우리 역사·문화의 일반성과 개별성을 설정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이 책은 신라말 - 고려 초 새로운 토지포세제도의 확립, 이의 기간(基幹)과 경리(經理), 운용, 고려 후기의 전제(田制) 파행과 전제이정(田制異政) 등 토지문제의 그 다각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담고 있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5,000원>



■ 朱子文(文 65) 前 충북대 총장

『제7대 광주여대 총장 취임』

주자문 동문이 지난 9월 1일 광주여대 제7대 총장에 취임했다. 주 동문은 "광주여대 생존과 발전, 도약과 비상을 위해 노력하고 대학을 21세기의 품격있는 여성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구성원 모두의 단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여성성'을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鄭煥洵(鄭 67) 전 서울여대 교수

『평준화 넘어 선진화』 출간

배호순 동문의 '평준화 넘어 선진화' 책에서는 평준화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을 내리고 있다. 평준화교육정책에 대해 개발적으로 이해하면서 그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다섯 개의 평가적 결론을 도출하여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성진화를 위해 필요한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다. <자유기업원 / 15,000원>

'교육선진화전략의 구상'도 출간하였다. <서울여대 출판부 / 9,000원>



■ 禹漢鎭(禹 68) 서울대 명예교수

우한용 동문이 지난 7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연구윤리의 확산과 연구문화 정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 柳錫烈(柳 68) 국회의원

『여의도 전망대』 출판기념회

자유선진당 유권찬 의원은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여의도 전망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柳 동문은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담은 '여의도 전망대'라는 책을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됐다"며 "선진당이 통합이라는 중요 사명에 와 있는 만큼 통합의 주체로서 충청권 정치세력의 단합을 촉구한다"며 "분열과 갈등, 반목과 대립의 정치에서 벗어나는 충청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柳子學(柳 68) 국제펜클럽 한국지회 부이사장

『시집 주머니속의 여자』 출간

유자학 동문이 '한국의 서정시' 제54권 '주머니 속의 여자'를 출간했다. 柳 동문의 이번 12번째 시집은 일본을 경탄한 엄청난 재능, 리미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상상과 혁명의 물결을 보여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쓴 시들 80편을 정리했다. 영혼을 어루만지고 소생의 힘을 주는 시, 그림, 노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현상이 어려울수록 서정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서출판 시하 / 10,000원>



■ 南榮(南 68) 충남대 교수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에 취임』

생물교육과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병재욱 동문이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한국생물과학협회는 한국통합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등 6개 학회로 구성된 우리나라 생물과학을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매년 학술대회와 생물학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생물학용어사전 편찬도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와 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자 1991년 9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간한 한국학 영문 학술지로 올해로 창간 반세기를 맞았다.



■ 成百藥(69) 시인

시집 '비밀이 다니는 길을 따라' 출간

민주당 출판국장·여성국장, 정실현 초대 여성위원장 등을 지낸 성백열 동문이 두 번째 시집 '비밀이 다니는 길을 따라'를 출간하고, 지난 9월 27일 오후 6시, 여의도 월드비전 9층 대강당 예배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제로 청소 중, 나는 누구인가?', '사제', '블랙싱 펄리스 오두막에서', '또 다른 나 만나기', '비움을 위한 진동', '글방에서', '이방에서' 등 8장으로 나뉘어 1백여 편의 시를 담았다. 표제작 '비밀이 다니는 길을 따라'는 한 편의 자서전이며, 자연과의 친화에서 비롯된 성장 연대기다. 성 동문의 정신적 변모를 읽을 수 있다. <한울출판사 / 9,000원>



■ 高永賢(生.71) 전 선유교 교장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예

고영현 동문은 지난 9월 1일자로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에 임명되었다. 高 동문은 서일중 교장, 서울시 과학전시관장, 장학관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유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특색 있는 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창의·인성교육에 힘써왔다.



■ 李東植(72) 前 KBS정책기획본부장

KBS비즈니스 감사 취임

이동식 前 KBS정책기획본부장이 지난 7월 12일자 KBS비즈니스 감사에 취임했다. KBS비즈니스는 88채널판을 비롯한 KBS의 모든 건물시설을 관리하는 KBS의 자회사이다. 李 동문의 清風會 회장직은 계속 수행하고 있다.

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3-76 KBS비즈니스

■ 李元熙(71) 전 한국교총 회장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취임

이원희 前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한국사학진흥재단 제9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며, 재단은 1800여 개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자금 지원, 교원·교직원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문화 찾기' 출판기념회

KBS에서 30여 년 간 문화전문기자로 활약해 온 李東植 동문이 10월 27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스미스가 좋아하는 한옥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동식의 길기'는 최근 우리 사회의 열병이 되고 있는 '길기'를 단순히 기행 치원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깊게 접근해 그 속에서 길기의 새 철학을 모색하고, '우리 음악 어디있나(K-POP의 뿌리)'는 서양 음악에 대한 맹목적 추종, 잘못된 자기 비하로 엉망이 된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 음악을 찾아가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본다.

<이동식의 길기-나를 사 12,000원/우리 음악 어디있나-북성재 15,000원>



■ 申鉉源(71) 前 여성가족부 차관

동국대 석좌교수로 임명

신현태 前 예술의전당 사장이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새 학기부터 '예술경영'에 대해 강의한다.



■ 鄭起敏(73) 前 강원도 행정부지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취임

지난 8월 21일 열린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김철환 사장의 후임으로 鄭 동문을 임기 3년의 사장으로 의결했다. 2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 田宅秀社(7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코리아저널 창간 50돌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2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코리아저널 창간 50돌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코리아저널은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

■ 裴鍾敏(裴 73) 영지대 교수

배종숙 동문이 지난 7월 31일 방목기초교육대학장으로 임명되었다.

■ 趙美惠(趙 73) 인하대 교수

지난 8월 1일자로 인하대 사범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여자 학장으로는趙 동문이 처음이다.



■ 朴仁雄(朴 74) 인천대 교수

박인호 동문이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영재교육 발전, 과학인재 양성 정책 발전, 과학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전 흥분)에 수훈을 수상하였다.



■ 安洋玉(安 75) 한국교총 회장

대한민국체육상 연구상 수상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대한민국체육상 연구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안 회장은 초등 체육수업에 이해중심개념수업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등 현직성 많은 연구실적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14일 오후 5시에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렸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1000만원이 주어졌다. 안 회장은 "체육교육 발전을 위해 상금 전액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盧在賢(盧 77)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은문화상 '언론부문' 수상

노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제22회 고은문화상 '언론부문'을 수상했다. 고은문화재단(이사장 김영수)이 주관하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이 상의 시상식은 지난 9월 22일 수원 과학대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노재현 동문은 매주 금요일 중앙일보 노재현의 시사각각 코너의 칼럼을 맡고 있으며, 우리 시대 출신 언론인 동문 모임인 濟南會의 총무로도 활약하고 있다.



■ 金洪日(金 77)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광일 동문이 지난 7월 1일 한국유럽학회로부터 제1회 유럽언론인대상 수상하였다.

■ 李在仁(李 78)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이재인 동문이 지난 6월 9일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에 임명되었다.

■ 李瓊麗(李 79) 前 에이트미디어 대표

아후·오버추어코리아 총괄 사장으로 선임

지난 9월 8일 아후코리아와 오버추어코리아를 운영하는 아후는 선임 한국 비즈니스 총괄 사장으로 이정환 동문을 선임했다. 후 동문은 "아후코리아와 오버추어코리아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광고주 모두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프리미어 디지털 미디어 기업으로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인터넷 산업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金美華(金 80) 감사원재정경제 감사국장

김영호 동문이 지난 7월 22일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되었다.

■ 宋瓊華(宋 80) 법무부 인권국장 겸 이사장

송완엽 동문이 지난 8월 중앙지법 제1차장으로 발령되었다.

■ 장석민(교육대학원 72조) 前 한국재활복지대학 학장

장석민 한국인성문화원 회장은 최근 청소년코앙서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삶의 지혜'를 출간했다. <발매후 / 12,000원>



■ 文麗純(文 67) 서울대 교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문용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임명됐다. 文 동문은 서울대 교육학과와 심리학과를 나와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교육연구소장, 교육부장관 등을 지냈다.



■ 安日新(安 75) 한양대 교수

안일신 동문이 지난 8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 과학기술대학장으로 취임했다.

'비취빛 삶이 되고 싶어'

잊지 못할 젊은 그날의 증언

韓國 金榮義(社49)



(前略)

나는 어머니를 도와 피난 보따리를 풀자마자, 대학으로 달려가 보았다. 6·25전쟁이 발발한 다다음 날이었다. 언제 빨갱이 조직에 가입하고 있었는지, 어디서 미리 준비한 것인지 젊은 머리를 두르고 정문에 나와 섰던 그 동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동글이 오색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등교하는 선·후배들을 불러들여 전쟁터로 끌고 갔고, 민청, 여성동맹 등으로 강제 가입시키는 무서운 하수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교수님들은 다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 학과의 선·후배들은 또 어떻게 살아있을까? 모든 것이 궁금했다.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낯익은 얼굴들이 모여들었다. 살아 있는 친구들의 모습에 우린 서로 반가움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다시 태어난 듯한 자신들의 삶을 헛되이 할 수는 없다고 누구나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남녀 학도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으면 한결같은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며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숙의(熟議)하고 또 숙의했다.

“우리 야배로 있을 수 있겠어? 뭘 할 일을 찾아야지 않겠어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 말이야.”

전쟁 모두가 마을 속에서 솟아나는 애국충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이리저리 배방으로 수수문하여 우리의 힘으로 보답된 일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그들의 누군가가 결연한 얼굴빛으로 달려왔다.

“국방부 정훈국에 대학생 의용군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어.”

“무엇을 하는 일인데?”

“정훈 선발대로 북한에 파견할 대상자라는 거야. 야배? 우리 한 번 해 볼만하지 않을까?”

당시 UN군과 우리 국군은 평양을 향해 진군을 거듭하고 있었다. 정국은 날로 안정되어 있으나 대학가는 어수선한 가운데 개강이란 염두도 못할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남학생이 인민군에 끌려가 생사를 모르거나 아니면 국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었으며, 많은 교수들도 나몰라려 거취가 불분명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별다른 빈 교정 모퉁이에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면서 삼삼오오 배를 지어 의논이 분분했다.

이윽고 이른바 ‘베스탈로치 클럽’이라 일컫던 우리 일행들이 중심이 되어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을 규합하게 된 것이다.

율리프 6가에 있던 구(舊) 사범대학(師範大學)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교수님 사택 방 하나를 집합소로 제 공받았다. 우리의 뜻을 가상히 여기신 우리 대학 생활과의 최 기칠 교수님께서 당시 자택을 내어주시며 격려의 지원을 해 주신 것이다.

그 어려운 수목 시설에 얼마나 따뜻한 배려를 하셨기에 그 땀비라지를 자랐으셨겠는가. 그 선생님의 인품과 제자 사당의 정을 보답할 길이 없다.

그 일의 진행은 단계적 동원이 요구되는 내용이며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았다. 우리는 적체 늦도록 서류 준비와 대책 협의에 몰두하였고 각자가 자원 입대함을 분명히 하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최종 확정된 명단을 정훈국에 제출하였다. 명칭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도지원군 정훈공작대’로 등재되었다. 때는 벌써 10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유혹을 받거나 강요당해서 된 일이 아니다. 각자의 애국충정과 불타는 동지애로 뭉쳐져 추진된 것이며 함께 참여하기로 확정된 동지들은 총 23명이었다.

‘베스탈로치 클럽’의 아버지라 불리던 이영덕(교육과 5회) 선생을 비롯하여 우리 모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영덕(교육과 5회), 정원식(교육과 5회), 한용기(교육과 6회), 이효갑(사회과 5회), 유문기(교육과 7회), 황종건(교육과 5회), 민정애(교육과 6회-여), 이상희(사회과 5회-여), 김옥선(교육과 6회-여), 이상선(체육과 7회), 정태환(수학과 7회), 임봉국(사회과 6회), 민병림(체육과 7회-여), 김영익(사회과 6회), 김○○(체육과 7회-여), 황용연(교육과 7회), 허범(교육과 5회), 전찬화(교육과 7회), 서상돈(과바상 7회), 이명원(과바상 7회) (*그 외 3명은 생각이 나지 않음) 이상이였다.

아울러 우리가 그 길을 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그 당시 국방부 정훈국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인 이선근 박사가 국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 더 쉽게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역사학자이신 그 선생님이 군복을 입으시고 앞장서신 모습에 존경과 신뢰감을 느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학 지성들이 솔선해서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일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큰 감명

을 주었고 우리들의 애국심에 불을 당기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하도익용군 정훈공작대 대장으로서 물리에 정의와 4년인 손도심 씨가 활동하고 있었다.

10월 23~24일경, 드디어 우리 정훈공작대의 발대식이 거행되고 그곳에서 모든 행동 지침이 교육되고 전달되었다. 발대식은 읍지로 부근에 있던 국방부 정훈국 전설의 옥상에서 치러졌다. 군복과 군모, 완장과 종군증이 지급되어 복장을 갖춘 하도 대원들은 대하별로 줄지어 대열을 정비하고 이선근 국장에게 처음으로 군대식 기수경례를 불렀다. 끝으로 손을 들고 충성의 맹세를 엄숙하게 다지는 선서를 했다.

그날 발대식에 참여한 대학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약 열 개가 좀 넘는 것 같았으며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든다면, 먼저 우리 사범대학이 맨 끝자리에 섰고 그 옆에 상과대학 그리고 문리대학 법대가 혼합된 소대 편성으로 서울대학교가 한쪽에 몰려 정렬했었다. 그 옆으로 단국대학, 국학대학과 지방대학들도 그 발대식에 함께 한 것 같으나, 여학생들은 우리 사범대학에만 끼어 있었고 타대학은 모두 남학생들만 있었다.

우리 정훈공작대는 국군 정훈 병력에 앞서 선발대로 북한 수복지역에 파견되는 것이며, 그 지역은 대하별로 해당되어 행선지를 그 해당 도내의 중심 도시를 근거로 하여 선무 활동을 하도록 짜여 있었다. 우리에게만 황해도가 배정되었고 우리 사범대학 소대의 책임자는 이효걸 선배가 맡게 되었다. 발대식을 마치고 나서 출동할 일사가 하달될 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정훈 선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챙기고 만들어 만전을 기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정원이 최 교수님 때에 집합했다. 마지막

점검이 필요했고 행동 통일을 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만 긴 편지를 적어 놓고 동생들 저녁 식사를 도와 준 다음 생활필수품을 넣은 배낭을 메고서는 집을 떠났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길은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웬지 가슴이 착잡하고 눈물이 맺음이 종종 흘러내렸다. 이미 10월도 며칠 남지 않은 때이니 아침 저녁 섣달 첫 바람이 왔다.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길이었으나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다. 어차피 한 번 주어진 목숨을 나라 위해 바치려는 굳은 각오였기에 돌아올 기약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 최 교수님의 격려와 당부를 뒤로 하고 하나로 뜨겁게 결집된 우리는 출동의 새벽을 맞았다.

(後略)

2011년 7월 25일 한누리미디어 발행

※ 이 글은 金榮義 동문이 6.25 당시에 겪었던 體験의 글으로써 '학도의 용군'에 함께 참여 활동했던 李相鉉(社壯) 동문의 體験記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편집자 주)

※ 金榮義 동문의 책에 관심이 있는 동문께서는 師大 同窓會로 연락하시면 선착순으로 冊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번의 冊 贈送"행사는 金 동문과 가까운 저희 동문께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동창회 연락처 전화 02)6399-6500 / FAX 02)6399-6501

어느 동문의 편지

서울師大 同窓會會長님께

會長님께서 보내주신 서신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會長님의 心情 理解하고도 남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협찬금을 보내드려 부끄럽습니다.

會長님의 건투를 빌면서 제가 生活하고 있는 短報를 말씀드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15해방의 격동기에 豫科에 다니고 學部 2學年初 6·25전쟁을 당해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休戰이 되어 부산에 내려가 복귀하려고 母校에 갔더니 등록기간이 지났다는 시험을 치루라는 것입니다. 父母를 잃은 子息의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때의 心情은 母校가 나를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격개심 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入室하여 시험지에 기명하고 白紙를 내 놓고 나왔습니다. 그 후 마음

에 상처를 입고 他大學과 대학원을 나와 苦悶 生活을 하다가 장년직임하고 연금으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간 서울師大 同窓會會報를 보고 동창회란 건립을 한다가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자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협찬한 것입니다. 저의 바램이 있다면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母校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갈 수 있도록 學校나 교수님들께서 학식단회하게 서로 손잡고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께님께 말씀드린 것 같이 죄송합니다.

내내 健康하시고 家內에 幸福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 8. 26.
咸 元 植 (사예문 49쪽)

정년 퇴직 (2011년 8월말)

李宇植(南進65) 서울대 교수
 張治均(南進67) 서울대 교수
 中正淑(化學67) 세종과학고등학교 교장
 金鍾冠(體育67) 경수중학교 교장
 金鍾源(物理68) 아주중학교 교장
 金成泰(數學68) 이수중학교 교장
 尹仁淑(家政68) 한강중학교 교장
 趙四太(數學68) 도봉중학교 교장
 權仁善(物理68) 원촌중학교 교장
 金顯中(國語69) 서울대 사대부고 교장
 金成烈(歷史69) 성수고등학교 교장
 尹韓基(歷史69) 개포고등학교 교장
 張龍(物理69) 현천중학교 교장
 高南佑(體育69)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 이동 (2011년 9월 1일자)

(서울)
 朴光秀(數學68) 잠실고등학교 교장
 曹韓子(國語69) 경수중학교 교장
 金鍾根(英語70) 양재고등학교 교장
 李冠廷(物理70) 성내중학교 교장
 金泰敬(生物70) 청암중학교 교장
 朴英順(物理71) 수인중학교 교장
 高永賢(生物71)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복지국장
 金成容(物理71) 중곡중학교 교장
 李玉賢(社會72)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庾在鎭(體育72) 경원중학교 교장
 洪美英(化學73) 관악중학교 교장
 安熙勳(國語74)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權元在(國語74)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연구부장
 許再煥(物理74) 효문고등학교 교장
 吳鍾柱(國語75) 송정중학교 교장
 金鍾南(物理75) 세종과학고등학교 교장
 李振成(化學75) 서울대 사대부고 교장
 金顯淑(生物75) 선유고등학교 교장
 金鍾福(生物75)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장
 朴炳熙(物理75) 중경고등학교 교장
 金永謙(體育75) 성서중학교 교장

李善謙(體育75) 대릉중학교 교장
 李俊宰(國語76) 수도여자고등학교 교장
 沈鍾勳(數學76) 한강중학교 교장
 金永謙(物理76) 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金炳國(地理77) 신곡고등학교 교장
 姜南旭(英語78)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朴宰鎭(地理78) 무학여자고등학교 교장
 崔宗顯(地理78)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山山石(教育79) 교육청 공동인사 장학관
 黃臨吉(教育79) 교육청 감사관 장학사
 金南亨(地理80) 수도여자고등학교 교장
 朴完主(物理80) 왕진중학교 교장
 宋宇圭(地理80)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金倫源(生物80) 과학전시관 교육연구사
 李丙熙(生物80) 강남교육지원청 장학사
 李和暖(化學80) 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관
 高孝謙(生物81) 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吳鍾根(國語82) 강동교육지원청 장학사
 尹信德(歷史82) 삼각산중학교 교장
 金榮澤(地理82)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鄭鍾柱(體育82) 석관중학교 교장
 張化順(歷史83)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陸孝林(歷史83) 교육청 감사관 복무담당 장학사
 李才熙(國語84)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趙均柱(國語84) 교육청 책임교육과 장학사
 柳熙勳(物理84)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崔命主(國語85) 창신고등학교 교장
 申元植(體育85) 상동교육지원청 장학사
 金永謙(體育86) 교육청 체육진흥과 장학사
 李在仁(國語87) 강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인천)

黃在(國語71) 부개고등학교 교장
 李淳謙(生物72) 제물포고등학교 교장
 徐鍾顯(地理70) 민수고등학교 교장

(경기)

李昭勳(體育78) 수원교육 교육지원과 장학관
 李國宰(生物74) 만포고등학교 교장
 鄭兆植(體育73) 연천중학교 교장
 李大熙(體育71) 삼일고등학교 교장

김남조 동문 시낭송회 대림성모병원 '문학의 밤'에서

대림성모병원(이사장 김광태, 행정원장 변주선(영60))이 환우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 15일 대림성모병원 2층 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새봄과 함께 환자에게 희망을」이란 주제로 「너를 위하여」, 「겨울 바다」 등의 주옥같은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김남조 시인(現 대림명자문 국민원로 회의 공동의장/국47)과 유자효(불68) 시인 등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대림성모병원이 환우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두테로 올해 10회를 맞이했다.



동창회비를 납부합니다.

본 동창회는 師大 전체 동창회의活性化는 물론 各科 同門會, 市道支會 등의 활성화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간의 동호회 활동 친목대의 동문과 동문간의 교류지원방안 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로번호 : 7521964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변주선)

회비내역

회 회 회	장	2,000,000원 이상
회 회 회	문	300,000원 이상
회 회 회	자문위원	200,000원 이상
회 회 회	회 회 회	300,000원 이상
회 회 회	회 회 회	50,000원 이상
회 회 회	회 회 회	30,000원 이상
회 회 회	회 회 회	400,000원 이상
회 회 회	회 회 회	200,000원 이상

회비 납부자 명단 (2011. 7. 23. ~ 10. 27.)

임원회비

변주선(60)·회장 200만원

평생회비(20만원)

진부재(76)1
신안사(76)3

한세영(75)1
염상미(78)4

일반회비

(경사)	김봉규(52)	2만원	정은실(70)	2만원	
김규원(42)	2만원	민영인(55)	2만원		
(교육)	장기숙(55)	2만원	(물리)		
유봉호(48)	2만원	강의영(61)	3만원	한민준(53)	2만원
이성진(53)	3만원	노기진(66)	2만원	장부진(59)	2만원
신동국(55)	3만원	유광영(79)	2만원	한정길(61)	3만원
				이상목(67)	3만원
(국어)	(역사)				
비종(45)	김영선(55)	2만원	(화학)		
정동호(53)			서정선(60)	2만원	
비한(57)	(지리)				
황옥진(59)	김수선(60)	3만원	(생물)		
	(수학)		정근호(49)	2만원	
	이길영(64)	2만원	노두호(51)	2만원	
(영어)	강신영(68)	2만원	박동근(54)	3만원	
			이시훈(57)	2만원	

조성재(61)	2만원	(가정)		윤종상(52)	2만원
김영애(64)	2만원	오광숙(60)	2만원	이우모(53)	2만원
(지구)		홍성재(63)	3만원	윤익모(62)	3만원
정한재(61)	2만원	(체육)		남궁규영(0)	2만원

이사 평생회비(40만원)

정병희(62)2

박경연(64)

이사회비

(교육)		(사회)		(물리)	
박희영(64)	5만원	황선영(57)	10만원	이동현(53)	5만원
(교신)		(역사)		(화학)	
황재호(61)	10만원	박남기(50)	9만원	박동(53)	10만원
(교정)		최병옥(54)	2만원	(지구)	
김종희(59)	5만원	(지리)		한진희(59)	5만원
(국어)		최인기(70)	9만원	(체육)	
김종민(59)	5만원			권영진(63)	5만원

※ 기금, 회비 납부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6305 (변주선)

천재교육의 崔容準 회장을 비롯한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동문들께서는 액수의 파이에 채워치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관 건립 기금 출연자 (2009. 4. 4. ~ 2011. 10. 27.)

(경사)	12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12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2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2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10만원	신도희(62)



2012년 2월에 人文學 特講 母校 師範教育 협력센터에서

본회는 母校(學長:金鐵旭)와 공동으로 人文學 特講을 師範教育 협력센터에서 갖기로 했다. 이 행사는 母校의 發展과 同窓會의 活性化를 함께 도모하고 나날이 變化發展하고 있는 母校의 모습을 많은 동문들에게 보여주시는 동창회 下莊山 회장과 사범대 金鐵旭 학장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行事內容 -

■ 일시 : 2012년 2월 16일(木)

■ 장소 : 서울대 사범대학

■ 주요행사

- ▶ 人文學 特講
- ▶ 母校 투어
- ▶ 참석자 간담회
- ▶ 식 사

※ 참석회당자는 본회로 신청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2011년 송년 모임

■ 일시 : 2011년 12월 14일(水) 오후 6시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시청 앞) 31층 모차르트홀

■ 회비 : 30,000원

■ 신청 : 11월 30일까지

☎ (02) 6399 - 6500

Fax, (02) 6399 - 6501

※ 민한과 여흥·게임·푸짐한 경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For your Eyes,
For your Life Since 1999

www.4eye.co.kr



명동성모안과

안과수술전문병원

원장 : 김재호 (생물 53)
안과전문의 김소열
김동해

· 믿을수 있는 의뢰권
· 최신 장비와 기구로 안전한 수술
· 철저한 사후 관리

| 진료 과 목 |

1. 시력고정수술(라식, 라섹, CL)
2. 백내장
3. 원추각막 및 각막이식
4. 안과질환검진

| 진료 시 간 |

- 평 일 09:00 ~ 18:30
- 토요일 09:30 ~ 16:00
- 급유일 휴진



상담 및 예약 02-319-9300

서울 중구 명동2가 60-14 유네스코회관 7층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여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세대 고속관광 관람서비스 업무안내

◆ 최신형 전세 버스 대여

◆ 국내 테마 여행

◆ 골프투어

◆ 수학여행 전문 업체

◆ 허니문 여행

차세대 고속관광 부회장: 최귀남 (제66 / 전 방산중 교장)

차세대 고속관광
02-469-8885